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 현

발행인 : 신성종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9:6)

성탄절메시지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1년 성탄절을 맞이한 충현의 온 가정들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충현의 성도들이 목자들처럼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24시간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한눈파는 사이에 양떼들이 맹수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구나 밤에는 피곤하고 졸립고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밤에 이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세리와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했던 때입니다. 이런 소외 계층에 천사의 음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에 대해서도 깊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편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천사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년 성탄절에는 편견을 버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꿈을 통해, 혹은 친구를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목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충현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빨리 할 것과 천천히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시나 생각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천천히 일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못 보고 목사님만 보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목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였습니다. 전도의 생활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1991년 성탄절에
당회장 집무실에서
신성종 목사

92년도 전도회 지회별 임원 선출

지난 주일, 남녀전도회 총회 열어

91년도 남녀전도회 총회가 지난 12월 15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회집되어 지회장을 선출하고, 1년간 전도사업 및 행사를 보고받았다. 이 날 총회에 앞서 가진 1부 예배는 전 회기 전도위원장인 우기전 장로의 사회로 진행, 송태근 목사의 기도,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봉독 후 신성종 담임목사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리"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예배 이후 지교회(서송원충현교회)당 건축헌금을 봉헌한 김동삼 장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92년도 전도위원장 최상규 장로 사회로 회무를 처리하였다. 오늘은 전도방침 설명과 함께 협의회장 선출을 한다. 각 지회별로 선임된 전도회 지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	한나	요한	베드로	바울
1	송정순	이수자	양선자	박옥식	박용호	이부성	
2	유상순	금호순	백경옥	김옥래	신광철	허형철	박정태
3	딱애영	김정희	박정현	김점례	양기수	소재욱	이상용
4	주순희	김은숙	윤여전	김용순	장석두	김문섭	고병국
5	차경숙	조영혜	최미정	김순복	공석생	강봉수	안종옥
6	김부영	전경자	박영여	이명자	이성섭	김수연	이명희
7	정미자	김순실	이혜수	정명섭	김성태	고종복	김도심
8	김경희	이군자	박인애	김후전	정원근	윤우선	박종현
9	홍순애	방소애	백숙자	임봉옥		황현철	오석부
10	김수영	이명희	김색윤	이옥분	이승득	정태두	엄기정
11	신영희	신희순	우순성	윤재춘	조증덕	이인영	정재복
12	김춘숙	김용숙	심영순	백죽심	김광호	김연근	박문태
13		김성녀	박갑례	고정임	조승철	홍성욱	안노수
14	지아연		김춘지	이남수	장경수	장철환	최개홍
15		황광자	서인희	변순복	오순도	이기성	박래원
16	전옥순	이혜자	홍혜숙	정봉조	황인수	고승균	
17	신귀옥	강동화	윤수인	팔기복	이병석	전홍렬	안성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본 교회 구제위원회는 이웃을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온정이 그리운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12월 21일 강남구청에 라면 1,040상자를 기증하였다. 이는 강남구청 소속 미화원, 수위, 가로정비원, 광고물단속원에게 전달될 것이다.

한편 제13교구 중곡 3구역의 이오순 성도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써달라고 성미를 보내왔다.

성탄 행사 안내

◆22일(주일) · 저녁 7시 본당 메시아의 밤(아멘찬양대)
◆24일(화) · 저녁 7시 본당 축하음악예배
:교회학교 초등1~6부 찬양대 전원
· 오후 2시~6시 만나홀
중등1,2,3부 성탄절 연합 행사
◆25일(수) · Ⅰ부 예배 오전 9시(교회학교별)
· Ⅱ부 예배 오전 11시
· 저녁예배(수요Ⅱ부) 저녁 7시
· 성탄새벽기도회(새벽 5시 30분 본당)
찬양:교역자 · 장로 부부 찬양대

신성종목사 위임목사 허락

수도노회 제40회 1차 임시노회서

수도노회(노회장 이만수 목사) 제40회 제1차 임시노회가 지난 20일 오후 2시 본 교회 선교관 5층에서 개최되어 대전노회장 조후연 목사가 보내온 신성종 목사 이명이래의 건과, 충현교회 정책위원회 당회장 직무대리 김관석 목사가 청원한 신성종 목사 충현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노회장 이만수 목사 사회로 진행, 부노회장 조국선 장로의 기도, 성경 삼상 13:14~15절 봉독 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노회장이 설교했다.

충현프리즘

⊙···신성종 담임목사의 위임예배가 내일(23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있게 된다.

우리 충현교회 설립 이래 위임목사로는 두번째가 될 신성종 목사는 본 교회 고등부 출신으로 원로목사님께 새례를 받고 신앙적 지도로 성장한 서민적 목회자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신학자이다.

수도노회 위임국 임원들이 친히 본 교회로 와 위임 예배 순서 및 절차를 진행케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인 우리들로서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이다.

충현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귀하고도 성스러운 예식인데 3만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께 열납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기도의 어머니 격인 권사회 회원들이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갖고 있다. 교회의 평안과 부흥, 교역자의 영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불씨를 계속 불이고 있는데, 권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 교인 배가 운동에 앞장서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9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과 독자 제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삼가 기원한다.

충현강단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 · ·" (엡2:11~22)

에베소서 2장을 읽어 내려가다보면 "그때에"라는 말과 "이제는"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2절, 11절, 12절에 나오며, 3절에 나오는 "전에는"이라는 말은 "그때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제는"이라는 말은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에"와 "이제는"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두고보자고 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생각하라고 하면서 두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상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이고 "이제는"이라는 상태는 주님을 믿은 이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애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생활에 차이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나아지는 것 없이 똑같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기쁨이나 뜨거움과 같은 감격이 지속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생활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엡2:11)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의 과거 신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외인이라는 말로 한 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너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유효한 축복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들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때에 우리들은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무할례당이란 이방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할례란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엡2:12)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택함받은 선민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또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배운 것이 많으니 앞날이 순탄할 것이다.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켜놓았고 사업이 잘되어 돈도 벌 만큼 벌어놓았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할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다른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비참한 과거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비참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불행했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셔서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예수 믿은 후의 상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2:13)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듯이 거리상으로 이웃에 살면 가깝고 외국에 살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엡2:14).

우리 나라와 제일 가까운 곳은 북한입니다. 북한에 부모님과 친척을 두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휴전선이라는 높은 담이 있어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고 한 번 가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가야 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비단 우리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종족의 담, 관습의 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은 수달가죽과 염소가죽과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세 마리의 소가 이쪽과 저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질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일년에 한번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후에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북의 담이 하루속히 무너져 모란봉에 수양관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남북이 휴전선 때문에 갈라져 있지만 우리 세대에 하나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3. 그리스도로 인한 화목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나와 이웃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인격이 분열되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2:16)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나와 이웃을, 나와 나를 더해줍니다. 죄악의 담 때문에 분리되었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나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믿으니 자연히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4.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2:19)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한 권속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며",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되셨습니다(엡2:20).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주춧돌이 건물의 한 귀퉁이에 있는데, 이것을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돌의 크기에 따라서 쓰이는 돌들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 표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퉁이돌이시고, 선지자나 사도나 우리들은 성전의 벽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2:22)

과거에는 우리들 안에 사탄이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비참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체험한 성탄

김해규 목사(대학부 지도)

해마다 성탄절이 찾아오게 되면 추억의 나래는 언제나 코 흘리게 시절의 성탄절로 나를 데려간다.

우리 가족은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꽤 오래 산 적이 있었다. 바다가 저 만치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맑게 갠 주일 아침이면 예배당의 종소리가,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실려온 마을은 물론 주변 동네에까지 울려 퍼졌다. 우리 개구장이들은 뒤뚱거리는 무쇠종의 모습과 종치는 집사님의 웃는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오늘은 몇 번이나 종을 치실까?' 세어보곤 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벌써부터 들뜨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판자집 예배당이 예쁘게 장식된다. 예배당 안에는 저녁마다 성탄 연습하느라 피워놓은 난로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른다. 더욱 신나는 일은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는 각종 대회였다. 나는 노래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지만 성경 암송에는 취미가 있었다. 그래서 받은 공책이니 연필이니 다 모아 가지고는 집에 와서 형제들끼리 누가 더 많이 탔나 견주어보는 것이 좋았다. 그때 암송한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누가복음 2장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설레이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새벽송 돌기'였다. 어른들과 중학생형들이 초롱을 하나씩 들고 교회당 마당을 출발하는 것이 그렇게도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끼워주지 않았다. 그러나 때는 왔다. 국민학교 4학년 성탄절이었다. 나는 아예 서투른 솜씨로 아주 조그만 초롱을 하나 만들었다. 밤을 꼬박 샌 성탄 새벽에 드디어 새벽송 대열에 낄 수 있었다. 중학생형들은 내가 만든 초롱을 보고 "그것도 등이냐!"고 놀려댔지만 아무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집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면서 문 앞에까지 다가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들밖에 한 밤중에'를 부르는 것하며, 그러면 주인이 미리 준비한 선물을 들고 나와서 자루에 넣어주는 것 하며,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매서운 겨울 새벽의 바닷바람이 나의 뺨을 에는 것도 모른 채 2킬로미터나 떨어진 마을을 두 곳이나 다녀올 정도였다.

나중에 아버지가 임지를 도회지로 옮기셨다. 그런데 거기서 맞이하는 성탄절의 기분은 좀 다른 것이었다. 아마도 이미 사라진 동심과 도회지 분위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성탄절이다. 성탄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었다. 그 날은 우리 학교가 시내 극장을 빌려서 '예술발표회'를 하는 날이었다. 그때 나는 그 발표회의 피아노 독주 순서를 맡았다. 그런데 마음이 벌써부터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의 순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나한테 성탄 노래 배우던 교회학교 애들이 연습하러 왔다가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가버리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연주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내 순서만 마치자마자 교회를 향해 총총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런데 그때 그 발걸음이 왜 그렇게 하전하고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지 모르겠다. 아뭏든 그렇게 뛰다시피 해서 교회당 문을 밀고 들어서보니 내가 담당한 애들은 진작부터 와서 교회당 안을 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모를 일은 나의 가슴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었다. 그 해 성탄절은 나의 보잘것없던 봉사와 아이들의 기쁜 성탄 노래 소리로 나의 마음이 꽉 채워졌던 그러한 성탄절이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마다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다. 그리고 지나갔다. 올해도 성탄절이 벌써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 흘리게 시절의 추억이 그렇게도 그리울 수가 없다. TV와 신문에서는 성탄 냄새를 풍긴 지가 벌써 오래 전부터였다. 우리 부부도 좀 늦었지만 애들을 위하여 조촐한 성탄 장식을 해놓고 캐롤송도 틀었다. 며칠 전엔 성탄 냄새를 맡아보려고 유치원 다니는 딸의 손을 잡고 단 둘이서 시내로 나갔다. 진열된 갖가지 성탄 카드들, 확성기에서 나오는 성탄 노래 소리, 반짝거리는 성탄 나무, 호텔과 음식점을 두른 화려한 안개등.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성탄절이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예전의 성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 그때 가졌던 흥분과 설레임을 회복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의 피아노 순서만 마치고 총총 걸음으로 돌아오던 그때처럼 나를 공허하고 슬프게 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것은 아빠의 손을 잡고 처음 시내로 나온 여섯 살난 딸의 마냥 행복해 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 어릴 때의 성탄절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맞이하고 싶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때의 성탄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이 복스럽게만 보였던 성탄, 밤잠을 설치면서도 흥분과 기대 속에 기다리던 성탄, 누구에게나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고 받고 싶던 성탄, 그렇게도 참여하고 싶었던 성탄, 예쁜 카드도 안개등도 없었지만 너무 가슴이 벅찼던 성탄, 마치 베들레헴까지의 고독한 밤길을 가면서도 가슴에는 남이 상상할 수 없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별을 따라 갔던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천군 천사들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또 하나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들뜬 성탄절의 공기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팅 비어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곰곰히 생각해본다. 코 흘리게 시절의 성탄절이 그처럼 좋았던 것은 성탄절이 오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겐 성탄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구태여 예수가 말구유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신의 삶에 진정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느낌도 상실한 우리가 되었나보다. 절박한 필요 없이는 채워짐의 기쁨도 없으며 목마름이 없이는 해갈의 만족도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나의 삶 속에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다시 한 번 깨닫고 가난한 마음과 코 흘리게의 가슴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성탄절이 기억에 남는 것은 어설프지만 힘을 다해서 성탄절 준비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하려고 할 때 성탄의 기쁨도 사람을 피해 가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에 힘을 다해 참여하기만 한다면 꼭 예전의 성탄이 다시 나를 만나줄 것 같다. 외면해도 괜찮을 사람, 무시해도 상관 없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데도 아직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꼭 만나서 성탄 냄새를 같이 나누어보고 싶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있는 것 같다.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된 것이다. 기다림은 좋은 것이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니까 말이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여,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꽉꽉 채워주소서. 당신의 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은총과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장로칼럼

한 해를 보내며

김철제 장로
(제8교구장)

한 해가 간다. 우리 일생의 소중한 또 한 해가 간다.

송년회, 동문회, 총회, 수 없이 많은 약속과 모임들, 카드, 연하장, 교애원, 양로원…. 바쁘고 피곤한 12월, 또 한 연말연시면 반복되는 결심과 다짐, 반성과 후회, 해를 거듭할수록 스스로 속는 분요(紛擾)함과 송구영신의 예 절없는 다짐을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가.

끝나야 한다. 이 기약 없는 반복에 끝나야 한다. 세상 일에야 그럼자 같고 부질없는 욕망에서 잡아 헛된 것이랴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결심조차도 어쩌하여 그처럼 물 거품이 돼어버리는 것일까. 열매 없이 무성한 잎만 남아 웨샌의 껍질만 두꺼워지니 참으로 서글프다. 이 연말에도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고, 나는 또 어찌할 수 없는 실패의 벼랑에 서게 된다. 간악한 마귀는 올해도 피할 수 없는 패배의 체념을 강요하며 나를 좌절케 한다. 슬프다. 우리의 헛된 애씀이여!

그렇다.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다. 죄 가운데 죽은 옛사람, 내가 노력하는 한 실망과 환멸은 끝이 없다. 베드로의 통곡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그가 어찌하여 하룻밤 사이에 세 번이나 주님을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인가? 죽음의 잔을 받으신 주님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용기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이다. 우리 자신은 전혀 하나님을 거쁘시게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쁘시게 하려고 우리 자신을 찾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는 영역, 곧 율법 아래 놓이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베드로의 철석같은 맹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결국에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다. 채움부터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조금도 꾸짖을 필요가 없으셨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통곡은 육신의 한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연적 최후이다.

연초에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굳게 맹세한다 해도 연말이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와 아쉬움에 곤고해 할 것을 주님은 잘 아신다. 버리자. 아담의 결심과 노력을 버리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끝나야 한다. 옛사람 아담 내가 죽어야 한다. 주님은 아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주님 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주님 외에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혼돈되고 그리스도 외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목마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금년을 보내며 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 옛사람을 장사하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교 선포하자. 아담 안에 필연적인 실패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은혜로 임하는 신비한 체험을 갖자.

다음호 칼럼은 최무길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신성종 목사님 위임을 축하함

신성한 충현제단 위임목사 되었으니
성령은사 충만받아 양떼들을 모으시고
종의 도 다하여서 으뜸목사 되옵소서
신령한 은혜받아 능력있는 목자되어
성공적인 목회로서 양떼들을 먹이시고
종교계 큰 별되어 세상을 비치소서
신자들은 안답니다 참된 종이 누군가를
성실한 말씀으로 양떼들을 기르시고
종말에 쓰임받는 큰 목자가 되옵소서
신의 뜻 순종하여 이 제단을 맡았으니
성심성의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고
종소리 울리면서 생명수를 주옵소서
신앙의 모범가정 어떠한가 보여주고
성공의 참된 도리 무엇인가 가르치고
종주국 선교나라 앞장서서 만드소서
신구약 성경연구 꾸준히 계속하여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배불리 먹이시고
종들이 존경하는 능력자가 되옵소서

주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십칠일

박철구 집사(제8교구)

●간증●

이 고통 인연하여

최선자 집사 (예능교회)

연예 생활을 하던 저는 날이 갈수록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원무궁토록 그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충청도 영동 지방의 부잣집 아들인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똑똑해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작가가 된 그는 시, 소설, 드라마의 당선작을 여러 편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예를 할 때 사람들은 신장 176센티미터에 체중이 78킬로그램인 그를 보고는 '이렇게 잘 생긴 사람이 배우를 하지 못생긴 여자가 무슨 배우를 하느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신문지상에 이름에 오르내릴 때는 마음이 들떠 있다가도 혼자되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가슴에는 내 가슴의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이것을 메꾸기 위해 최고 작가, 최고 배우를 향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당시 "전설따라 삼천리" 라는 TV드라마의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취재를 하러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어느날 취재에서 돌아온 뒤 열이 40도까지 오르면서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내리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매일 검진을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계속되는 기침으로 폐가 늘어지고 굳어져 결국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사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퇴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말처럼 뛰어다니던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으로 돌아오자 성격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병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여위어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어쩔 도리가 없으면서 마음만 다급해졌습니다.

새벽에 방송국에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면 약 시중들 사람이 없어 어린 두 딸이 약 시중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숨이 끊어지려는 때가 많아지자 주사 놓는 법을 배우기까지 하면서 극진히 간병을 했습니다.

병이 길어지자 입원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 있던 집도 팔아야 했고 생활이 자꾸 바닥나는데도 남편은 좋아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문병오던 술친구나 친척들도 3, 4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은 으레히 아픈 사람으로 낙인찍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분하여 남편이 입원을 해도 입원했다는 말을 하기도 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달래고 살자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렸을 때 한, 두 번 나가던 교회, 인기 있고 건강할 때 교회다니라고 하던 친구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에게 예수 믿자고 하니, 그럴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이 맞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병만 나으면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남편을 위해 몰래 기도해 주고 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술과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 나도 그들과 친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어떤 친구는 남편의 소식을 듣고 바쁜 시간에 짬을 내어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들고 와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생수를 떠다 주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믿는 친구들의 이런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보고 감동을 받은 남편이 하루는 "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 다닐 수 없으니 당신이라도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안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남편은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송국에 나갈 때는 남편 들으라고 기독교방송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살같이 흘러 큰 딸이 고3이 되었습니다. 내신성적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을 남겨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전 날 남편이 갑자기 열이 40도로 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딸아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편안히 병원에 갈 수 있느냐면서 입원을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사가 왕진을 오고 친척들을 부르고 난리를 치니 딸은 공부를 한 자도 못하고 시험보러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저나 남편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무엇을 감당해도 좋지만 어린 것들이 무슨 죄입니까?"라고 말입니다. 결국 딸아이는 그 중요한 시험을 망치고 남편은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반 응급실에서 치료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산소호흡기로도 모자라서 굵은 대롱을 입을 통해 넣어 폐에 연결시켜 기계가 펌프질을 하면서 호흡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심전도를 잰다고 여기저기 줄을 연결해놓고, 링겔주사를 꽂아놓고, 피검사를 계속해대는데,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기계의 도움으로 연명을 하면서도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제발 살려달라."며 눈이 빠질듯이 나에게 애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목사님께 연락하여 심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후 병실로 들어가보니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의 얼굴이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고개짓으로 그 동안 고생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떨면서 서 있었더니 펜과 메모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려나보다 생각하고 갖다주었더니,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해 금식기도를 하신대. 너무 고맙다고 전해줘."라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유명한 작가라는 자부심에 교만하였던 그가 주의 종이 친히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금식기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일주일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처럼 남편이 있던 병실이 바로 천국으로 화했습니다. 매일 X-Ray촬영을 했는데 그때마다 죄로 인해 시커먼 자신의 가슴을 찍는 것 같다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또 피검사를 위해 하루에도 7, 8번씩 피를 뽑아 그 부위가 송곳으로 난자해놓은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아파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이제는 아프지 않아. 예수님께서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지내다가 딸아이의 대학 합격증을 받아보고 목사님이 기도해주시는 가운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은 상대적이고 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보니 세상 것은 재미없어졌고, 찬양하는 곳, 기도하는 곳, 말씀 공부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유명했을 때는 어찌해도 메꿔지지 않던 마음의 구멍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니 참 기쁨과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참 소망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